

기부 행위 선택에 대한 패널 로짓 분석: 2006~2015년 한국 복지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A Panel Logit Analysis Research on the Choice of Donate Behavior: Using 2006~2015 Data of Korea Welfare Panel

황정은

인클로버 재단 연구소장

Jungeun Hwang(nirir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기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 패널의 10년 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은 가구 수 기준 134,500개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 p<.05$).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9, p<.001$). 둘째, 근로형태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부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8, p<.001$). 셋째, 자아존중감($\beta=1.673, p<.001$)과 삶의 만족도($\beta=1.01, p<.001$)는 기부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beta=.211, p<.001$)이 기부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변수들의 정밀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대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기부 | 기부행위 | 자원봉사 | 패널 로짓 분석 | 한국 복지 패널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Donate Behaviour. With the 10 years data in Korea Welfare Panel and Panel logit analysis, the analysis has done on the basis of household and sampled 134,500 dat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n demographic variables, women revealed as they donate more than men($\beta=.223, p<.05$). And the more the age grows, the less they donate or volunteer periodically($\beta=-.009, p<.001$). Second, in working conditions, paid workers showed less donate behavior than self-employment workers an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beta=-.578, p<.001$). Third, Self-esteem($\beta=1.673, p<.001$) and Life satisfaction($\beta=1.01, p<.001$)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donate behavior. Lastly, scholarship of father($\beta=.211, p<.001$) revealed as significant on donate behavior. However, scholarship of mother did not showed significant effect. Also, the research had some limitations. First, the precision of the variables were not tested. Second, some variables to analyze were not in the data. Therefore, proper considerations on testing the precision of the variables and the method for measuring the missed variables are needed.

■ keyword : | Donation | Donate Behavior | Volunteer | Panel Logit Analysis | Korea Welfare Panel |

I.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국민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의 상실, 가족과 사회공동체가 해체 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1],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경제의 트릴레마(trilemma)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건전재정과 소득평등 그리고 고용증대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2]. 즉 탈산업화된 서비스경제 국가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고, 최대 두 가지만 달성할 수 있는데, 이때 나머지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3]. 또한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고,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기부와 자원봉사가 주목받고 있다[1]. 민간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의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기부는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일반적으로 기부는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 자원봉사와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5]. 이러한 기부와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6]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7]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보상 없이 타인과 사회를 돕는 자발적인 형태의 행위[8][9]이다. 기부와 자원봉사의 개념은 시대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자발, 자주, 자유의지를 내포한다. 결국 자원봉사와 기부는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본이 되고, 변질된 인간성을 참된 인간성

으로 회복시키는 사회적인 촉매로 작용한다[10].

자원봉사(시간기부 혹은 용역기부)를 포함하는 기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동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12], 동정심[13] 등이 기부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기부참여율이 높다는 연구[14]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부는 11세 이전에 경험을 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경험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0]. 그 결과, 노년기에 많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16]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와 자원봉사는 자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성을 갖게 되고[16][17], 반대로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18].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참여에 관한 연구[19][20], 노인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21][22]가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24][25]가 있지만 주로 한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단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동기요인을 살펴본 연구[26-28]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658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는 봉사활동 참여동기를 내재적 및 외재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임파워먼트 수준을 조절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기부활동을 지속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동기유형별로 지속의향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배분에 우호적이고, 타인의 삶을 돌보는 역할에 익숙하여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기부행동을 한다고 보고한다[32]. 그리고 연령은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부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34]와 은퇴 이후의 여유 시간이 증가하면 오히려 기부행동은 증가한다는 연구[35]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금근

로자가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낸다는 연구[31]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기부행동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현에서 시작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36-38]. 동시에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이타적 동기가 증가하여 기부행동이 증가한다고 한다[37][38]. 부모의 영향이 성인기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0],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기부활동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33].

이렇듯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개인의 동기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개인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중단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단연구를 통하여 기부와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패널분석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합동로지분석과 패널로지분석(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확률효과모형의 패널로지분석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본 모형을 중심으로 기부행동 선택 요인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방법론

1.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도 자료를 머지(merge)하고 풀링(pooling)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실시되고

있다[29]. 한국복지패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 중인 전국단위의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표본수는 134,500개이며, 연도별 표본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도별 표본 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표본 수	14,463	13,478	12,929	12,655	12,275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표본 수	11,608	14,974	14,530	13,941	13,647

2. 변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0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부 행동의 선택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정기적인 기부 행동 여부(그렇다=1, 아니다=0)로 구성하였다. 이때 기부는 시간적 기부를 의미하는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부모로부터의 영향 등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더미변수(남=1, 여=2)로 구성하였고, 가구원의 연령은 조사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차감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였다(조사년도-태어난 년도). 근로환경으로는 공적연금 수급여부(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1, 수급하고 있지 않음=2)와 근로유형(임금근로자=1, 그 외=0)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건강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 가족수입만족, 직업만족, 사회적 친분관계만족, 여가생활만족을 포함하는 전반적 만족도)를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Liker 5-scale)로 측정하였다. 이때 응답 값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10문항(가치 있는 사람, 좋은 성품, 실패한 사람, 타인과 협업, 겸손한 정도, 긍정적인 태도, 전반적인 만족, 자신의 존경, 쓸모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때 부정적인 설문문항은 리버스 코딩(reverse coding)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수준(미취학 및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전문대졸=5, 4년 대졸=6, 석사=7, 박사=8), 부모의 상속이나 증여 여부(있다=1, 없다=2)를 분석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2. 변수 설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정기적인 기부 혹은 봉사활동	그렇다=1, 아니다=0
독립 변수	성별	남=1, 여=2
	연령	만 나이(조사년도-태어난 년도)
	공적연금	수급=1, 비수급=2
	근로형태	임금근로자=1, 그 외=0
	자아존중감	10문항의 평균값, 리커트 4점 척도
	삶의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아버지 학력	8점 척도
	어머니 학력	8점 척도
부모로부터의 상속 혹은 증여	있음=1, 없음=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행위 선택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패널분석은 횡단면적인 데이터 정보와 시계열의 데이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시계열 분석 혹은 횡단면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 낸다[39]. 동시에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한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 패널분석에서는 오차항에 대해 개인(individual)간에는 다르나 시간변동이 없는 변수, 시간변화에 따라 변동하나 개인 간에 차이가 없는 변수, 개인 간에 차이가 있고 시간변화에도 확률적 상관항으로 구분하여 다루게 된다[39].

개체특성 효과와 시간특성효과 모두 존재하지 않고 절편이 모집단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이 합동 모형이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인 간 특정 요소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특성 효과는 확률적 변동(random

variation)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의미한다[40].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불변의 개별특성 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쓰게 되며,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없다면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확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는 가정에 차이가 있다. 오차항을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고정불변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확률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 간의 차이를 시간에 따라 그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확률적인 변수로 개인 간 특성이 고정되지 않는 임의의 확률적인 변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변수의 설정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기부 행동은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닌 이산형 변수(binary variable)이다. 따라서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모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오차항에서 패널의 개체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0]. 다음의 (식 1)은 로짓모형을 표현한 것이다.

$$y_{it} = \begin{cases} 1, & y_{it}^* > 0 \text{인 경우} \\ 0, & y_{it}^* < 0 \text{인 경우} \end{cases} \quad (1)$$

$$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_{it}$$

위 식에서 Y_{it}^*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인(latent) 종속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Y_{it} 는 Y_{it}^* 의 관찰 값(observed value)이다. 따라서 $Y_{it}=1$ (기부 행위)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30].

$$\Pr(y_{it} = 1) = \Pr(y_{it}^* > 0) \quad (2)$$

$$= \Pr(\epsilon_{it} > -\alpha - \beta x_{it}) = F(\alpha + \beta x_{it})$$

위의 (식 2)에서 F 함수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이때 로짓모형은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그리고 패널자료 분석(panel data analysis)은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오차항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가정을 위배하거나 오차항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머지한(merge) 패널자료를 합동(pooled) 로짓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패널의 개체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해야 하며, 오차항 u_{it} 를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중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식 3)에서 오차항 u_{it} 는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정한다. 이와는 달리 오차항 ϵ_{it} 는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이때 오차항 u_{it} 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면 고정효과모형으로, u_{it} 를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이 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psilon_{it} \quad (3)$$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불변 변수는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시간불변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합동(pooled) 로짓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고,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통해 합동 로짓모형과 패널확률효과 로짓모형 중 어느 모형이 타당한 모형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분석은 stataMP 13.0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기부 및 자원봉사의 경우 평균이 .088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녀의 비중이 거의 동

일하게 분포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은 평균 약 52세로 분석되었다. 공적연금 수급여부는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가 더 많았고, 근로형태로는 임금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2.240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정도가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중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평균이 3.390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수준이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의 중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은 연구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변수	N	Mean	S.D
기부 및 봉사	131,886	.088	.283
성별	134,500	1,579	.493
연령	132,913	52,498	19,804
공적연금	131,948	1,877	.327
근로형태	131,917	.484	.499
자아존중감	126,631	2,240	.288
삶의 만족도	126,638	3,390	.726
아버지 학력	20,991	3,297	2,024
어머니 학력	20,991	2,781	1,879
증여	20,962	1,844	.362

2. 패널 로짓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선 합동(pooled) 로짓모형, 패널 로짓모형(고정효과, 확률효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였다.

첫째, 합동 로짓모형의 적합도 및 유의도를 살펴보면, 우선 Pseudo R²가 .0595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40에 도달하지 못하여 모델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도의 경우 LR chi2(9), 즉 Log likelihood chi square test 값이 673.60으로 Prob>chi2=.000이므로 유의수준 1%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pseudo R2의 경우 적절하지 못하지만, chi2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패널 로짓모형(확률 효과)의 경우, Wald chi2(9)가 Prob>chi2=.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기의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불변 변수는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시간불

변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동 로짓모형과 패널확률효과 로짓모형 중 어느 모형이 타당한 모형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우즈만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의 p값이 .0221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합동 로짓모형보다는 패널로짓모형(확률효과모형)이 더욱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4. 분석결과

변수	pooled logit		panel logit(random)	
	b	t	b	t
성별	.123	2.20*	.223	2.15*
연령	-.005	-3.58***	-.009	-3.52***
공적연금 수급	.096	.90	.163	.87
근로형태	-.324	-5.90***	-.578	-5.10***
자아존중감	.900	10.18***	1.673	7.31***
삶의 만족도	.573	14.50***	1.01	8.54***
아버지 학력	.114	5.96***	.211	5.17***
어머니 학력	-.042	-1.97*	-.073	-1.84
증여 여부	-.330	-5.05***	-.618	-4.59***
상수	-6.032	-17.17***	-11.354	-8.90***
적합도	LR chi2(9) = 673.60***		Wald chi2(9) = 91.26***	
하우즈만 검정	chi2(9)=19.39, Prob>chi2=.0221			

*p<0.05, **p<0.01, ***p<0.001

패널로짓모형(확률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 p<.05$). 즉,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많은 기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유의수준 1%에서 부(-)의 관계를 갖는다($\beta=-.009, p<.001$).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행동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형태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578, p<.001$).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부행동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73, p<.001$). 즉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1, p<.001$). 즉 본인의 건강수준이나 직업, 가족의 수입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부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머니의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211, p<.001$).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여부는 유의수준 1%에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618, p<.001$). 즉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자가용 등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타인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부행동 선택의 인과성을 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우선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기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타인의 삶을 돌보는 역할에 친숙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배분에 우호적이라는 연구 결과[32]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의 행동선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동안 봉사활동 비율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34]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은퇴 이후 여유 시간이 증가하면서 기부참여가 증가한

다는 연구가 존재하지만[35], 이것은 기부 선택 행동이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에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만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근로형태가 기부행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부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무래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즉 임금근로자가 더 많은 기부금을 낸다는 연구[31]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는 기부행동의 빈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부금의 액수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기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기부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부행동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현과 이타적 동기에서 시작된다[11-1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38].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이러한 연구들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영향이 성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14]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졌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부와 자원봉사 습관을 물려받는데, 실제로 학력이나 경제력이 높은 지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3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첫째 변수의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부득이하게 기부 행동과 원인변수들을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부행동을 측정하였는지 명확하지 못한 제한점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분석을 위해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변인들을

연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대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K. E. Lee, "Family Volunteering and the Family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2, pp.63-87, 2003.
- [2] H. H. Lee, S. H. Jung, J. E. Hwang, and J. S. Kim, "A Study on the Wage Determinants and Gap of Social Workers,"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Vol.14, No.1, pp.3-24, 2015.
- [3] T. Iversen and A. Wren,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Vol.50, No.4, pp.507-546, 1998.
- [4] S. S. Kim and S. H. Moon, "A Study of Donation System and Taxation Support Plans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Vol.16, No.4, pp.63-93, 2015.
- [5] C. H. Kang, "An Exploration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Trus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9, No.3, pp.5-32, 2007.
- [6] J. Wilson,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6, No.1, pp.215-240, 2000.
- [7] M. Snyder and A. M. Omoto, "Volunteerism: Social Issues Perspectives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Vol.2, No.1, pp.1-36, 2008.
- [8] J. Wilson and M. Musick,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Volunteering," *Social Science Quarterly*, Vol.79, No.4, pp.799-814, 1998.
- [9] L. F. Moore, *Motivating Volunteers*, The

- Vancouver Volunteer Center, 1985.
- [10] M. Wils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Volunteer Programs*, Colorado: John Publishing Co., 1990.
- [11] R. Bekkers and P. Wiepking, "To Give or not to Give, That's the Question. How Methodology is Destiny in Dutch Dat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35, pp.533-540, 2006.
- [12] C. K. Cheung and C. M. Chan, "Social-cognitive Factors of Donating Money to Char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23, No.2, pp.241-253, 2000.
- [13] R. Bekkers and P. Wiepking, *Generosity and Philanthropy*, Sage, 2007.
- [14] J. J. Havens, M. A. O'herlihy, and P. G. Schervish, "Charitable giving: how much, by whom, to what, and how?," W. W. Powell, and R. S. Steinberg(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15] B. L. Fischer and K. B. Schaffer, *Older Volunteer: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Sage, 1993.
- [16] L. F. Moore, *Motivating Volunteers*,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 1993.
- [17] F. R. Rohs, "Social Background, Personality and Attitudinal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to Volunteer and the Level of Involvement among Adult 4-H Leader,"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15, No.1, pp.87-99, 1986.
- [18] T. Seekins and R. M. Mathews, "Enhancing Leadership Skills for Community Self-Help Organizations through Behavioral Instruc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2, No.2, pp.155-163, 1984.
- [19] C. S. Kim and S. I. Choi, "The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2, No.4, pp.315-326, 2012.
- [20] K. H. Lee, "Social Participation and Voluntarism of the Elderl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12, pp.7-24, 2001.
- [21] B. S. Lee and W.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by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are Work*, Vol.2, No.3, pp.87-108, 2006.
- [22] K. H. Ryu, "The Impact of Motivation Fulfillment for Volunteer of Lif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2, pp.145-172, 2013.
- [24] Y. H. Kim, "A Study on Juveniles' Satisfaction with, and their Continuity, of Volunteer Activities by Participation 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2, No.1, pp.17-41, 2005.
- [25] Y. C. Choe and Y. S. Ja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Youth Volunteer Activities in Terms of Continuity, Motivations and Inten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9, No.2, pp.87-109, 2008.
- [26] J. K. Kam and M. H. Park, "The Functional Mechanism of Motivations as Predictor of Continuous Volunteering,"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Vol.45, pp.7-50, 2014.
- [27] K. H. Ryu,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Volunteers' Motivation, Reward Perception, Volunteering Task Satisfaction," *Social Welfare Policy*, Vol.37, No.4, pp.75-96, 2010.
- [28] D. S. Kang, U. K. Bae, and K. H. Ryu,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s' Motive, Task,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2, No.4, pp.59-77, 2010.

- [2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n Welfare Panel Study User's Guide*, 2016.
- [30] I. S. Min and P. S. Choi, *STATA Panel Data Analysis*, Seoul: jiphil media, 2012.
- [31] S. J. Cho and H. K. Oh, "How Charitable Giving is Affected by Donors'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in Korean Baby Boom Generation,"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Vol.12, No.1, pp.33-62, 2013.
- [32] W. Arts and J. Gelissen, "Welfare State,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Acta Sociologica*, Vol.44, No.4, pp.283-299, 2001.
- [33] R. Sundeen, and S. Raskoff, "Volunteering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Nonprofit and Volunteer Sector Quarterly*, Vol.23, No.4, pp.383-403, 1994.
- [34] A. Herzog, R. Morgan, and J. Morgan,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44, No.4, pp.129-138, 1989.
- [35] J. Wilson and M. Musick,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2, No.5, pp.694-713, 1997.
- [36] M. Haggberg, "Why Donors Give," *Fund Raising Management*, Vol.23, No.2, pp.39-40, 1992.
- [37] W. Ickes, R. Kidd, and L. Berkowitz, "Attributional Determinants of Monetary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Vol.44, No.1, pp.163-178, 1976.
- [38] A. Sargeant, J. Ford, and D. West, "Widening the Appeal of Ch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Marketing*, Vol.5, No.4, pp.318-332, 2000.
- [39] C. I. Choi, "Panel Model: Time Series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at the same time," *Planning and Policy*, Vol.320, pp.120-127, 2008.
- [40] O. Ashenfelter, P. Levin, and D. Zimmerman,

Statistics and Econometrics, NJ: John Wiley and Sons, 2003.

저자 소개

황정은(Jungeun Hwang)

정회원



- 198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이학사)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언론학과(행정학석사)
- 2010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전달체계, 데이터마케팅